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4주년 기념식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2일 개원 14주년을 맞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이인배 연구실장,곽유신 사무처장 등 연구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공공디자인센터 권영현 연구위원과 사무처 김정희 세상에게 10년 근속 감사패를 수여하고 오후에는 체육행사도 가졌다.

연구원은 지난 1995년 6월 총 1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연구직 27명이 지난해에만 기본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등 총 181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문 77건 및 연구조성사업 53건 제외)을 올려 1인당 6.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총 829억원의 국비 확보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연구원은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짧은 1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200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용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연구원의 경쟁력이자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토대 마련

- 충청권 IT 산업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아산시는 5월 28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청권 IT 산업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아산만권 광역경제권 중심의 New IT 산업벨트와 기초과학을 연계한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워크숍은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에는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과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가, 종합토론에는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 등 전문가 10여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정부가 2015년까지 총 3조 5,487억원을 투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오는 6월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후 최종 입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비전인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일류국가 창조를 위

해 주요 추진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또,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아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안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제하면서 "전략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인프라 특화, 비즈니스 환경 강화, 지속가능한 녹색생활환경조성을 통한 도시네트워크화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강희복 아산시장은 "아산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초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생산+비즈니스+연구기능』의 복합화로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New IT융합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복합산업의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배망사이언스밸리조성사업 및 플렉서블디스플레이 R&D센터 설립 추진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통한 IT기반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다.

6조 3,561억원 생산유발 효과, 40,121명 고용증가 발생

- 고속도로 주변 주요 지역간 양극화 해결 급선무
-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는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앞두고 충남의 연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충청권이 2시간 내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발생할 다양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주변 저점과의 연계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사례를 통해 볼 때, 분령 개통 이후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연평균인구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종사자수의 증가율은 개통 이후 6년간 전국평균 0.7%보다 약 2배가 높은 1.33%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의 공간구조가 서해안선과 경부축의 2개 남북축의 형태에서 이제 동서연결의 H자형 발전축이 형성되며, 장기적으로 서천~공주축이 연장 발전할 경우 X자형 공간구조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전~당진 개발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이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불류수송시간 단축, 비용 경쟁력 강화 등 기회요인



을 제공함으로써 IC 주변 10km 이내에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는 등 산업발달을 촉진시킨 가능성이 높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매력도와 휴인력이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주변 큰 도시 혹은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인구 이동이 생겨 개발소외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IC 및 종점부 주변 개발과 연계도로 확충을 통해 아울렛, 쇼핑단지과 같은 유통산업과 불류·제조산업의 확대 등 지역별·거점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속도로가 수요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 건설을 통한 수요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과 함께 일부 낙후지역의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충청광역권 형성을 선도하는 새로운 개발축으로 삼되, 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선도개발하고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다각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IC 연접부의 난개발 및 토지투기에 따른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와 적절한 토지이용 규제들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7개의 개발권으로 묶어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는 도로망을 중심으로 자원과 자원간, 고속도로 IC와 개발거점간, 개발거점과 개발거점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자원 활용 및 클러스터 형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활용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산업·관광도로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국제항만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

고 있는 대산까지 조기에 연장 건설되어야만 충청광역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개발축으로서 지역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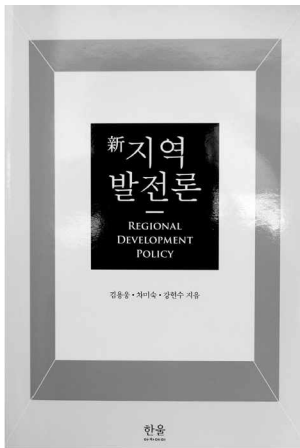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연구위원은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을 찾는 방문객은 대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행대로라면 고속도로 종점과 통과 지역의 관광효과는 양분될 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당일관광 등 지역 이탈율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제주올레가 대표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듯이, 무엇이 '충남다움'인지에 대한 재성찰을 통한 주요 관광상품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이미지, 장소, 시장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충남관광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두 고속도로 개통은 서해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인근의 관광객을 서해안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등의 관광모텔을 발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목원대학교 김혜천 교수,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 충청남도 이기춘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新지역발전론」 출간



도시 및 지역개발 전문가인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이 국보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와 함께 최신 대두되고 있는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을 집대성하여 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新지역발전론」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출간되었던 「지역발전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지역정책의 변화된 환경과 전략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과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개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공서는 물론이고 정책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규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신지역발전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은 5월 11일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38세,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인명연구소(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로부터 2010년 판 '21세기 위대한 지성(Great Mind of the 21st Century)'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박사는 지난 4월 등재를 통보받은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0년 판과,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Cambridge, England)가 발간하는 인명사전인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0년 판에 이어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중인 정 박사는 최근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2008)", "동북아시아 독수리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2007)", "큰부리바다오리의 국내 첫 관찰 보고(2007)"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야생조류보호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왔다.

충남발전연구원, 2008년도 우수연구성과 발표회 가져

-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 제고 및 개선 방안 위해 노력할 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총발연이 지난해 연구했던 과제 중 기본과제(1년간 연구원 1인당 1과제 수행) 21건과 기획과제(공모를 통한 외부전문가 수행 연구) 16건 중 분야별 우수한 연구성과를 각 3건씩 선정,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된 우수연구과제는 오용준 책임연구원의 "비도시지역 공장입지관련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비롯한 기본과제 3편과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의 "충남서북부권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등 기획과제 3편이다.

김용웅 총발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원들의 수고가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발표되는 6편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인 과제 모두가 소중한 결과물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조용래 부원장은 '지방연구원 연구성과의 정책활용도 모색'이란 기초연설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학문적 기여에서 실용적인 연구, 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성과의 정책활용 방안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핵심적 정책 및 대응논리 개발 ▶한발 앞선 정책방향 제시로 고객과 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 ▶도정 이슈가 될 만한 과제를 미리 선정하여 시의성있는 정책을 개발 ▶연구원 모두가 홍보마인드를 갖고 연구결과를 세일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연에 정책개발 및 분석을 위한 T/F팀의 운영과 정책 집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 파견 근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총직원 40명 중 27명의 연구원으로 기본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등 총 181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분 77건 및 연구조성사업 53건 제외)을 올려 1인당 6.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총 829억원의 국비 확보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무심기? 내친김에 새집달기까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1주년 기념 식목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4월 3일 오후 식목일에 즈음하여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이전 1주년을 기념하는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연구원 주변에 심은 나무는 살구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가시오가피 등 유실수 중심의 20여 그루로, 각 부서별 자발적인 책임관리제를 통해 식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이 없도록 했다.

또한, 연구원 주변 나무에 5개의 새집을 달아 1년 365일 새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식목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연구원의 '새 박사'로 통하는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가 처음으로 새집 달기를 제안하면서 "새집은 박새, 직박구리 등 몸이 작은 새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식목일과 청사 이전 1주년을 기념하여 심은 나무인 만큼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가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지난 5월 연구원이 장만해 준 새집에 곤줄박이와 박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하고 있는 모습